

주요 내용

1. [다문화가족 실태 및 인식]

우리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이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자녀 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

2) 자살 사별 경험자의 정신 건강 실태



우리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강연에서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우수한 외국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한국 거주 외국인, 그중에서 결혼이민,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된 ‘우리국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한국인’ 또는 ‘귀화자+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혼이민자, 귀화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해당 가구의 기본 정보를 조사한 최대 규모의 다문화가족 대상 조사로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젊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규모는 2007년 대비 2.8배 증가했으며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6.3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넘버즈 205호>에서는 한국 내 다문화 가족 실태와 다문화 가족의 가정·경제활동·자녀교육 전반에 걸친 실태와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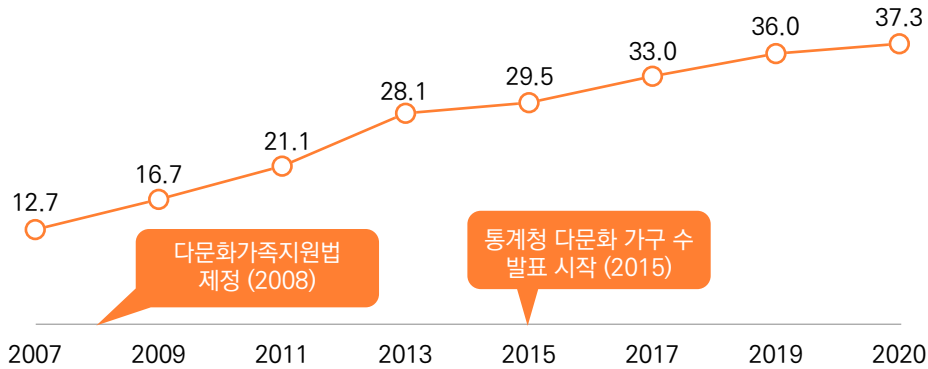
01

[다문화 가족 실태]

결혼이민자·귀화자 37.3만 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이주민**의 수는 약 213만명으로 '외국인 주민 통계'가 시작된 2006년(54만명) 대비 4배가 증가했다. 그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 내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7.3만 명으로 2007년 조사(12.7만 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추이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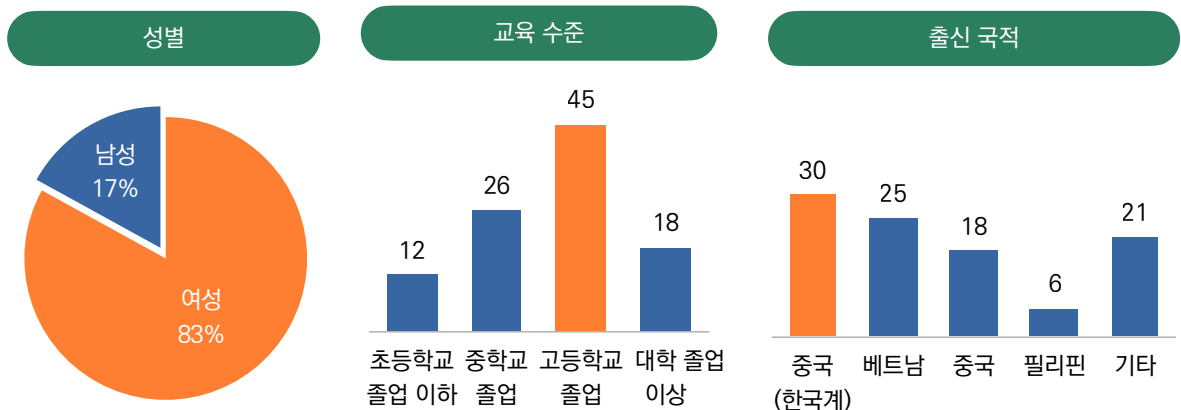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보고서 내용 중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 참조)

**이주민 : 노동, 결혼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과 해외 동포, 난민, 유학생 등

◎ 결혼이민자·귀화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성!

-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별 특성을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으로 남성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육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3명 중 2명 정도(63%), 출신 국적은 '중국(한국계)', '중국'과 '베트남'이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결혼이민자·귀화자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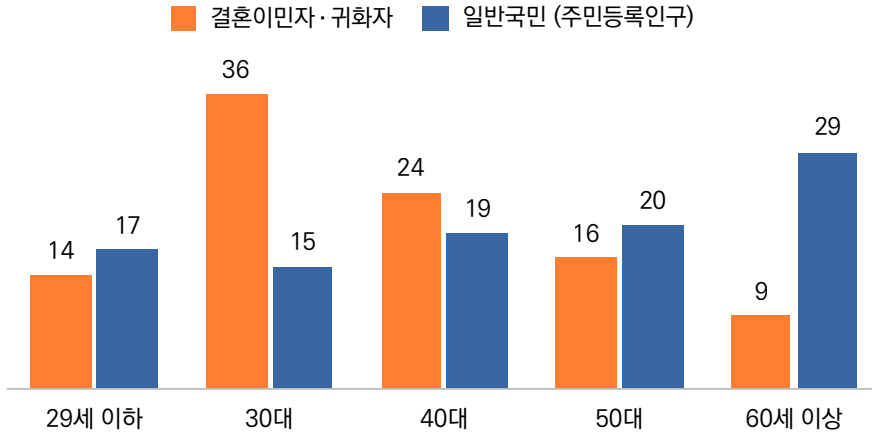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 결혼이민자·귀화자 30대 비중, 일반국민보다 2배 많아!

-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36%로 가장 많고, '40대' 24%, '50대' 16%, '20대 이하' 14%, '60대 이상' 9%였다. 3040세대가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 ▶ 일반국민(주민등록인구)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우 30대 비중이 일반국민 대비 2배 이상 높고,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1/2 수준(결혼이민자 25%, 일반국민 49%)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연령대 분포 (2021년 기준, 18세 이상,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보고서 내용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참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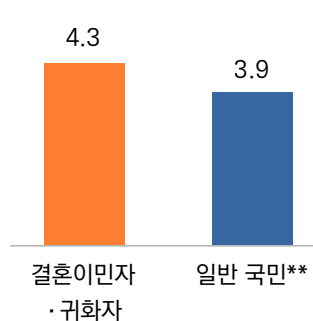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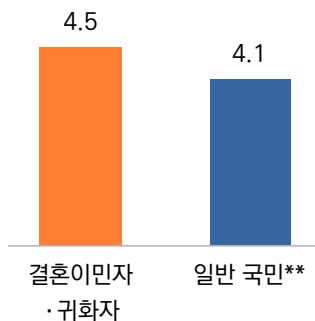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의 가정생활과 어려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만족도, 일반국민보다 높아!

-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를 일반국민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점 매우 만족)로 각각 질문한 결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 평균은 4.5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도 평균 4.3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 ▶ 이를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만족도' 모두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배우자 관계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그림]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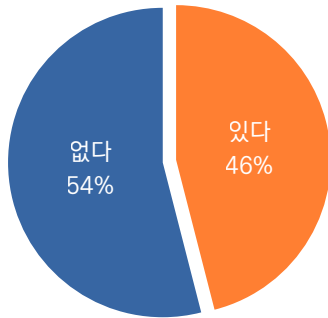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사회조사, 202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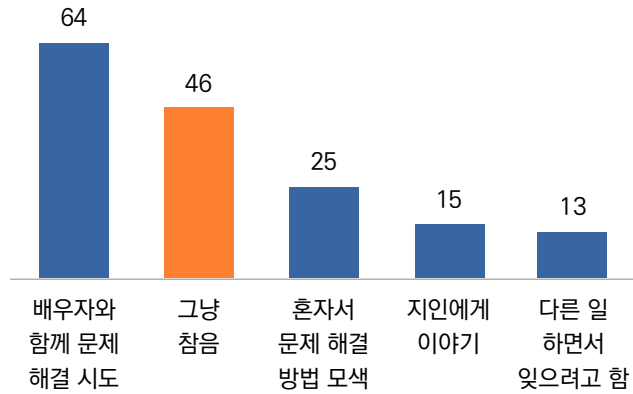
◎ 배우자와 갈등 시 절반 가까이가 ‘그냥 참음’

- ▶ 지난 1년간 배우자와 갈등 경험에 관해 물었더니 절반 정도인 46%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이 부부 갈등 시 대처하는 방법(1+2순위)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시도’가 64%로 가장 많았으나, ‘그냥 참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배우자와 갈등 경험 (배우자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지난 1년 기준)



[그림] 배우자 갈등 시 대처 (배우자와 갈등 경험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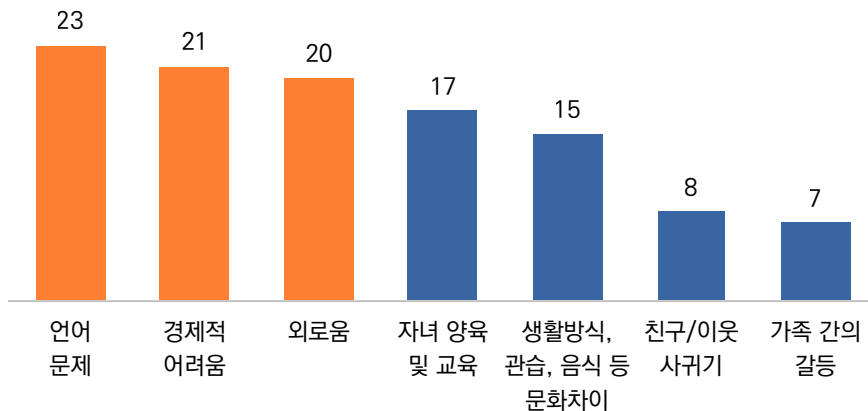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 한국 생활의 3대 어려움,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 ▶ 결혼이민자·귀화자에게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언어 문제’(23%)와 ‘경제적 어려움’(21%) 그리고 ‘외로움’(20%) 등 세 가지가 가장 높게 지적됐다.

[그림] 한국 생활 어려움** (결혼이민자·귀화자, 지난 1년 기준, 복수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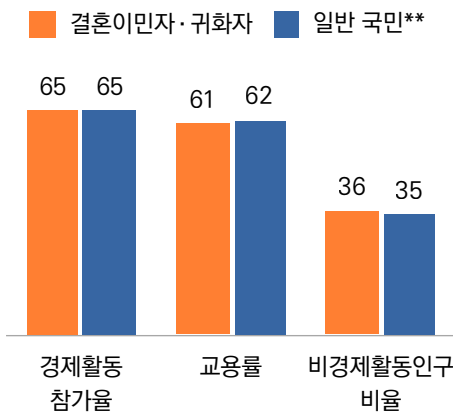
**어려움 없음 응답 제외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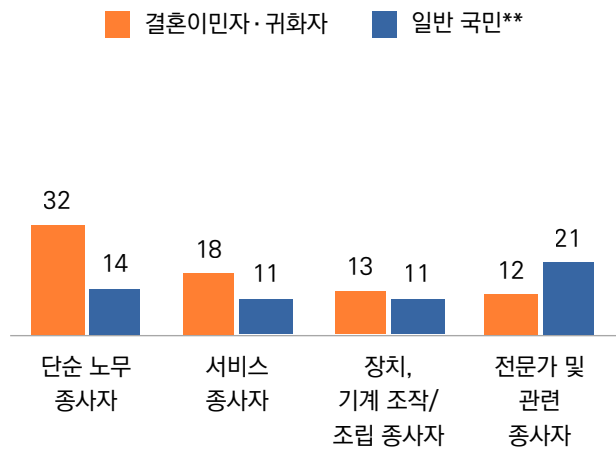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의 경제활동 및 인식]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 일반 국민의 2배 넘어!

-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다문화 구성원의 경제활동과 직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0명 중 6명이 '취업상태'였고, 3명 중 1명 남짓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상태'(비경제활동인구 비율)였다.
- ▶ 다만 직종별로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일반 국민 간 차이를 보였는데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많은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일반 국민'이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구성원의 경우 블루칼라 직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경제활동 현황 (%)



[그림] 경제활동 직종 (결혼이민자·귀화자 기준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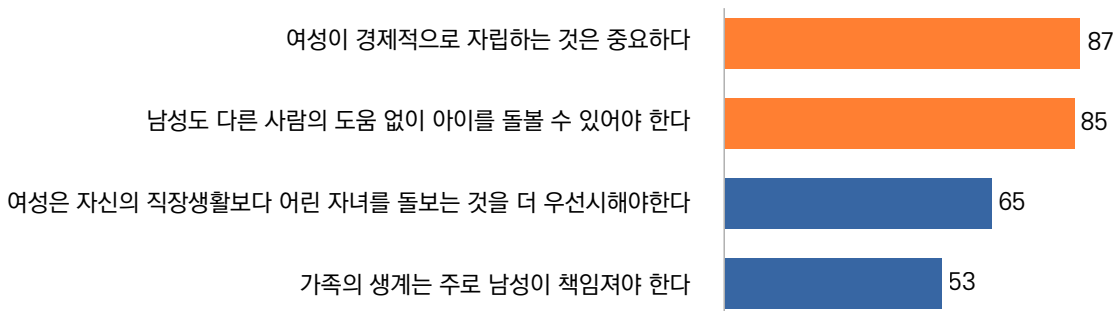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결혼이민자·귀화자 대다수, '여성의 경제적 자립 중요하다'!

-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 역할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87%)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85%)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10명 중 9명 가까이에 달해 대다수는 '전통적 성 역할'보다는 '양성 평등적 역할'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다문화 구성원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자녀돌봄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성 역할 인식 (결혼이민자·귀화자, '매우+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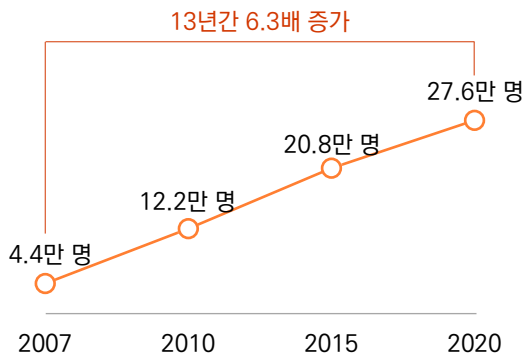
**4점 척도

04

[다문화 가족의 자녀 실태와 교육 인식] 13년간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 6.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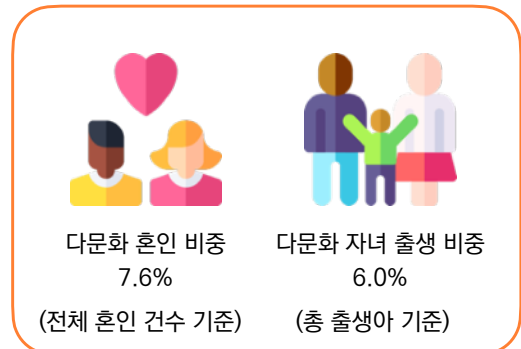
-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4.4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현재 27.6만 명으로 6.3배 급증하였다. 동일 기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수가 2.6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자녀 규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한편 전체 국내 인구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7.6%, '다문화 자녀 출생 비중'은 6.0%로 비율상으로 10% 안쪽이었다.

[그림]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 추이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보고서 내용 중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 참조)

[그림] 다문화 혼인과 출생 비율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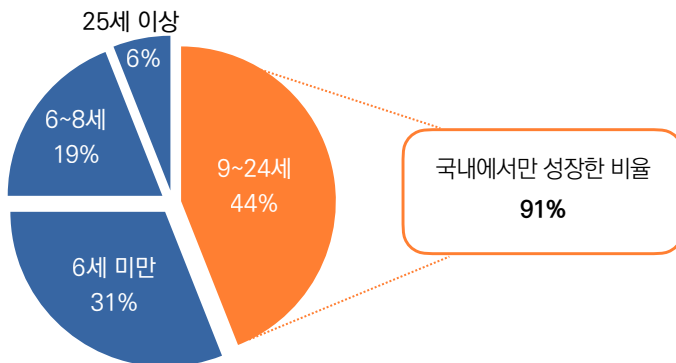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보고서 내용 중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참조)

◎ 다문화 가족 자녀 91%가 국내에서 성장 → 피부색만 다를 뿐, 한국인!

- ▶ 다문화 가구 자녀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9~24세'의 청소년에 해당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세 미만' 31%, '6~8세' 19%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9~24세)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은 91%로 대다수였다. 이들은 겉모습만 다를 뿐 온전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의 다음세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림] 다문화 가구의 자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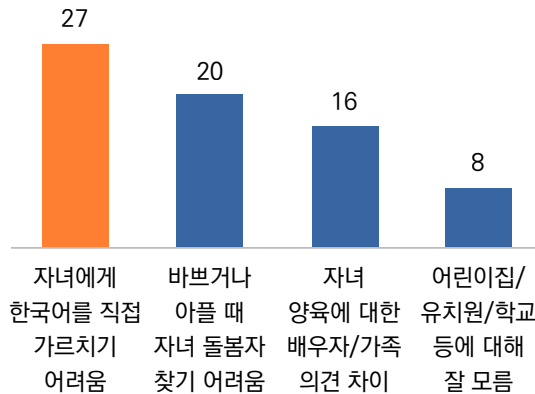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 자녀 양육 어려움, 만 5세 이하는 ‘한국어 지도’, 만 6세 이상은 ‘학습 지도’!

-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은 결과,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이 4명 중 1명꼴(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 돌봄자 찾기 어려움’ 20%,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가족 의견 차이’ 16% 등의 순이었다. 만 6세 이상 자녀의 경우 응답자 절반이 ‘학습 지도/학업 관리 어려움’을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 다문화 자녀 연령대별 양육/교육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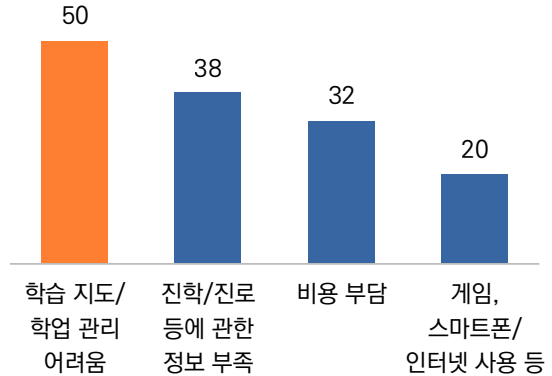
[그림]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어려움**

(해당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상위 4위, %)



[그림]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 시 어려움**

(해당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상위 4위,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03.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 면접조사, 2021.08.02.~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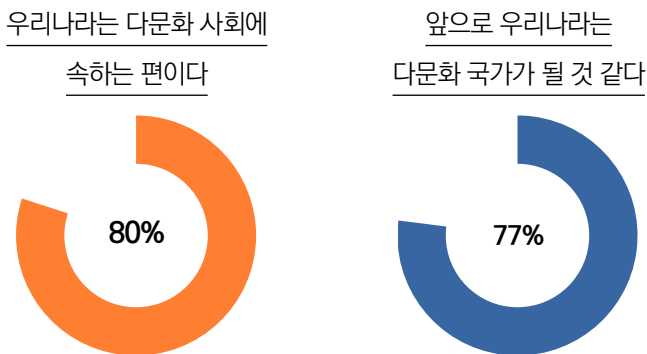
**어려움 없음 응답 제외

05

[한국인의 다문화 사회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이다’!

-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다문화 사회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속하는 편이며’(80%), ‘앞으로 다문화 국가가 될 것 같다’(77%)에 동의해 국민 대부분은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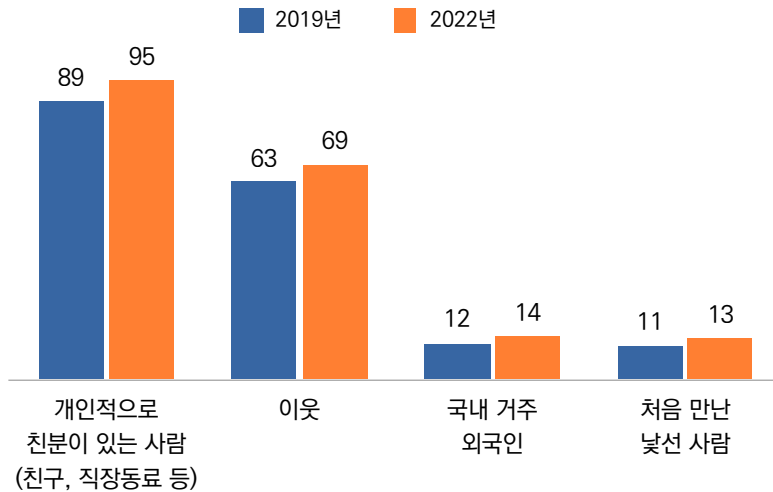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다문화 사회 관련 인식 조사', 2022.05.18.(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5.13.~05.17.)

◎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 ▶ 앞서 다문화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열려 있었지만 사회적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 10%대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사회적 집단에 대한 신뢰 (일반 국민, '매우+약간' 신뢰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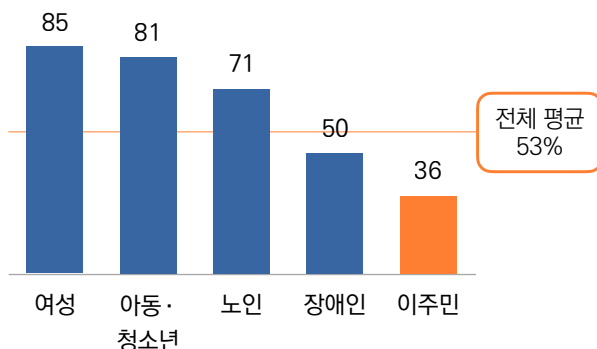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2022.12., '2022 다문화 사회 관련 인식 조사', 2022.05.18.
(전국 만 19~79세 남녀 5,100명, 면접 조사, 2022.07.13.~08.24.)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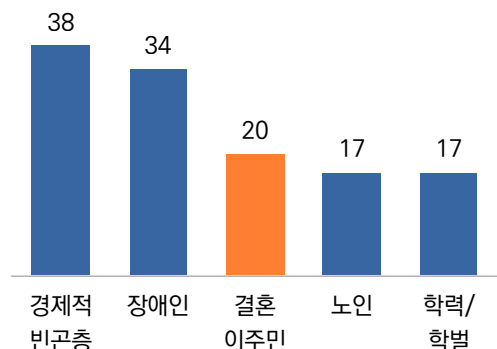
◎ '결혼이주민',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차별 받는 집단 3위!

-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53%)이었는데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로 5개 집단(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중 가장 낮았다.
- ▶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은 결과, '결혼 이주민'(20%)이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3위에 랭크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존중도 (일반 국민, '존중된다' 응답률, %)**



[그림]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일반 국민, 2개 복수선택, 상위 5위,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의식 조사', 2022.12.07. (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148명, 면접조사, 2022.07.01.~09.16.)

참조) 원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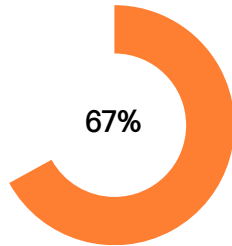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존중된다(매우+존중되는 편) 비율임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인종에 대한 편견’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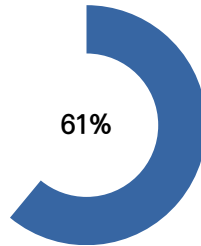
- ▶ 인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다’에 3명 중 2명가량 (67%)이 동의했고 ‘나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에 61%가 동의해 다문화 사회로의 흐름에 맞는 국민 인식은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인종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동의율)

우리나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느낀다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다문화 사회 관련 인식 조사', 2022.05.18.(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5.13.~05.17.)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부부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2021년 기준 83%)이고 출신 국적이 아시아인(중국+베트남+필리핀 비율 79%)이다 보니 다문화가족 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주로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 가족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에 대한 인권 차별 개선을 위해 사용된 것이 시작이었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한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으므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관련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이주민 의제를 다루는 학술연구와 언론매체 등에서 핵심어가 되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2022년 여성가족부가 조사 발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전문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수는 37.3만 명으로 13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우자와 아이까지 감안한다면 100만 명 이상이 다문화가정 인구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은 젊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일반 국민의 연령대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30대’ 비율(36%)은 일반 국민(15%)보다 2배 이상 많고, 50대 이상 중·노년층 비율(25%)은 일반 국민(49%)의 절반 수준이다. 2020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7.6만 명으로 13년 전보다 무려 6.3배 증가했으며, 다문화 가구의 자녀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9~24세 비중은 44%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

운 것은 ‘언어 문제’(23%)와 ‘경제적 문제’(21%) 그리고 ‘외로움’(2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배우자와 갈등 경험은 46%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갈등 시 대처 방법 중 2, 3위가 ‘그냥 참거나’(46%) ‘혼자서 문제 해결’(25%)로 나타나 상당수가 외롭게 갈등을 처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우리나라가 현재 다문화 사회에 속하고 앞으로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지만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나라와 본인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14%에 불과하다는 결과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시대와 환경의 흐름이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국민 정서상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 역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목회데이터연구소 구독자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넘버즈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본인이 가진 열매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절제’가 33%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8%로 5번째로 랭크됐다. 참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렵거나 약한 것이다.

외국인 이주민은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공장지대뿐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지역에서도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다. 결혼이주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한국 사회가 그들을 여전히 ‘편견의 대상’,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앞으로 그 가정이 받은 상처는 한국 사회가 갚아야 할 짐이 될 것이다. 향후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게 될 우리나라로서는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선도적으로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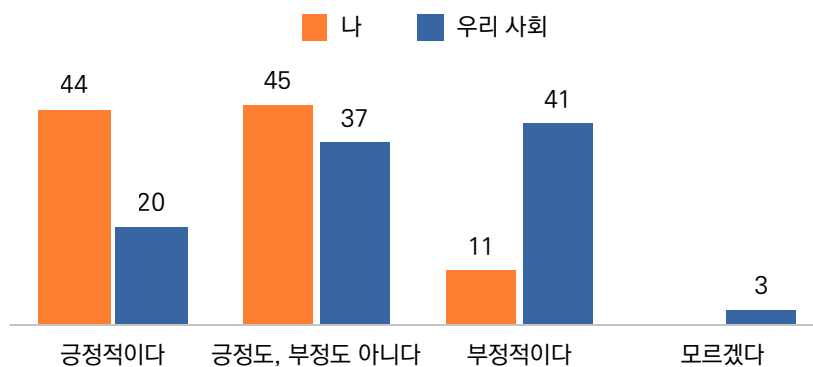
- 1.[자녀 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
- 2.[자살 사별 경험자의 정신 건강 실태]



나는 입양에 긍정적,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정적!

- ▶ 우리 국민의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돼 살펴보았다.
- ▶ 자녀 입양에 대해 개인적(본인 스스로)으로는 '긍정적'(매우+긍정적인 편)이란 응답이 44%로 '부정적'(매우+부정적인 편) 11% 대비 4배나 높았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도 절반 가까이 높게 응답해 대체로 입양에 긍정적인 편이었다.
-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해 '긍정적'이란 인식은 20%에 그쳤고, '개인'의 입양 인식과는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2배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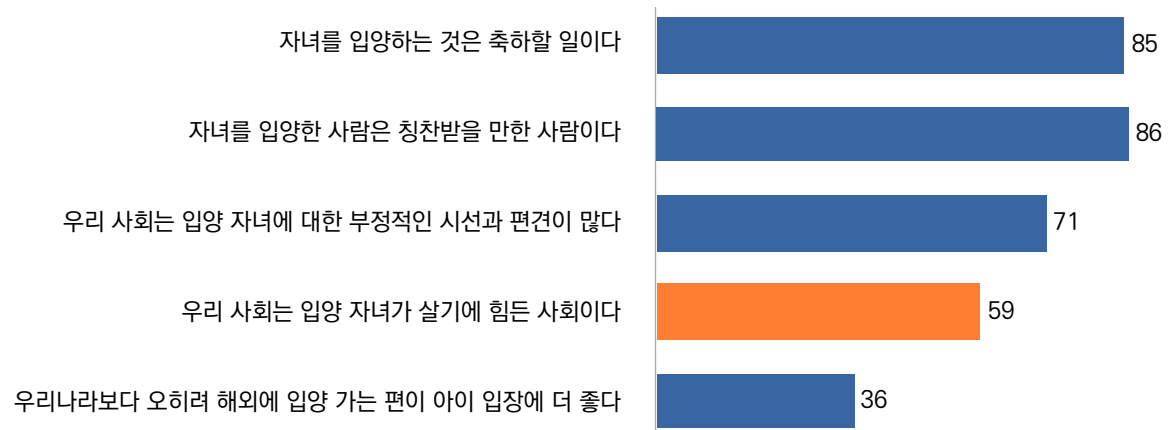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입양에 대한 인식', 2023.08.23.

**5점 척도임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입양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

- ▶ 입양과 관련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매우+그런 편)을 물었다. 먼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85%), '자녀 입양한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86%)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71%는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이 많다'고 응답했고,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든 사회'라는 데는 59%가 동의해 우리 사회가 입양 자녀에 대해 포용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매우+그런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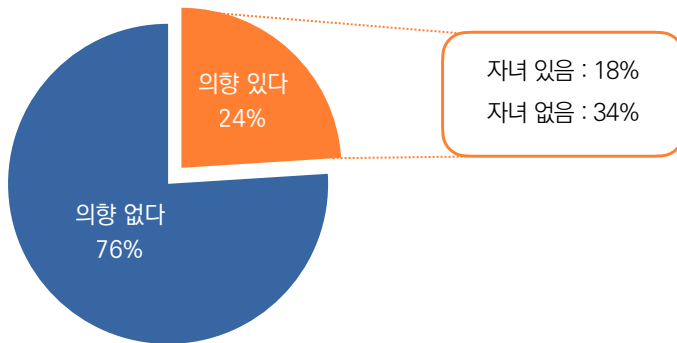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입양에 대한 인식', 2023.08.23.

**4점 척도

◎ 우리 국민 4명 중 1명, 자녀 입양 의향 있어!

- ▶ 향후 자녀 입양 의향에 대해 묻은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1명 정도(24%)는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입양 의향률(매우+있는 편)이 34%로 유자녀자 대비 2배가량 더 높았다.

[그림] 자녀 입양 의향 ('매우+있는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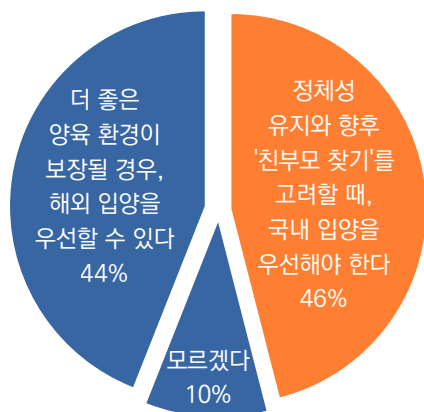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입양에 대한 인식', 2023.08.23.

**4점 척도

◎ '국내 입양 우선' 46% vs '해외 입양 우선' 44%!

- ▶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시행하고 있어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 ▶ 위의 '입양특례법'을 설명한 후, 국내 입양 우선과 해외 입양 우선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정체성 유지와 향후 친부모 찾기를 고려할 때, 국내 입양을 우선해야 한다'가 46%,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해외 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4%,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해외 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4%,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해외 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4%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림] 국내 입양 우선 vs 해외 입양 우선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입양에 대한 인식', 2023.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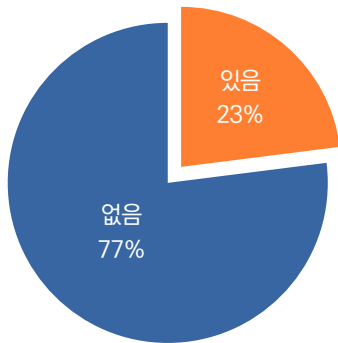
**4점 척도



한국인 4명 중 1명, 주변인의 자살로 인한 사별 경험!

- ▶ 한겨레21과 한국심리학회가 '자살 사별 경험'과 '주변인의 자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전국 만 19~69세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해당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중 '주변인의 자살 사별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한국인 4명 중 1명(23%)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주변인 자살 사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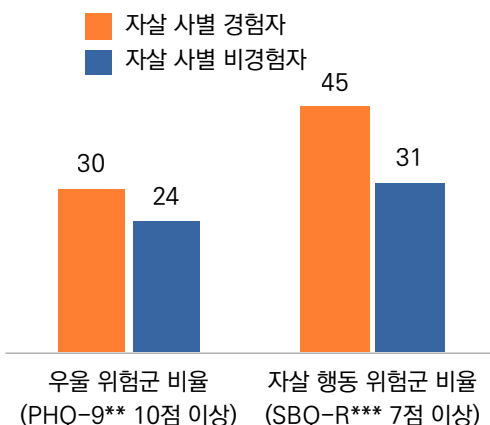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겨레21, 자살 사별, 한국인 4명 중 1명은 경험했다 기사 참조, 2023.08.1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27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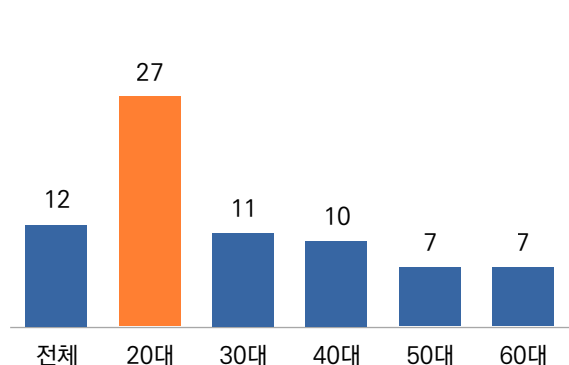
◎ 자살 사별 경험자의 우울감·자살 행동, 사별 비경험자에 비해 높아!

- ▶ 자살 사별 경험 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자살 사별을 경험한 경우'와 '경험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우울 위험군 비율과 자살 행동 위험군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살 사별 경험자가 '우울감', '자살 행동' 비율에서 자살 사별 비경험자보다 1.2~1.5배가량 더 높았다.
- ▶ 한편 자살 사별 경험자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정신건강 서비스 참여에 타 연령대 대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울감, 자살 행동 위험군 비율 (%)



[그림] 자살 사별 뒤 정신건강 서비스 받은 경험률 (자살 사별 경험자, %)



*자료 출처 : 한겨레21, 자살 사별, 한국인 4명 중 1명은 경험했다 기사 참조, 2023.08.1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273.html)

**용어 설명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우울증 선별검사는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0~4점 정상범위, 5~9점 가벼운 우울증, 10~14점 중간정도 우울, 15~19점 약간 심각한 우울, 20점 이상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함

'SBQ-R,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자살 행동 척도(자살 위험성평가)는 과거의 자살 행동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4문항(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자살생각빈도, 자살의 의사 전달과 자살 의도, 자살 가능성에 대한 자기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7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55호 \(2023년 8월 4주\)](#)

-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향후 1년 경기, 살림살이, 국제분쟁) 등

[女の원은 여성정책만? 청문화·예결산·국정조사서도 목소리 더 컸다](#)

시사저널_2023.08.18.

◎ 사회 일반

[노인빈곤율 OECD 1위인데...연금에 투입하는 정부지출 꼴찌 수준](#)

연합뉴스_2023.08.27.

[대한민국 빛 무게, 무려 '6157조원'...미래 세대는 '암울' - 국민일보](#)

국민일보_2023.08.18.

["출퇴근 10분 길어지면 소득 19% 준다"...빈곤 부르는 '낭비통근' - 중앙일보](#)

중앙일보_2023.08.27.

[쓸땐 짜릿? 고소땐 애걸복걸...악플러는 가정파괴범, 장난에 '인생폭망'](#)

매일경제_2023.08.23.

["서울 유아 영어학원비 평균 월 119만원...대학 등록금 2배"](#)

연합뉴스_2023.08.21.

[최근 5년간 87명 영재학교 떠나..."학교 적응 방안 고민해야"](#)

연합뉴스_2023.08.22.

["미래먹거리 AI·양자컴퓨터 기술 격차보다 심각한 건 인재 부족"](#)

조선일보_2023.08.28.

◎ 기업 / 경제

[졸업했지만 일자리 없는 '청년 백수' 126만명](#)

연합뉴스_2023.08.27.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연합뉴스_2023.08.23.

['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동아일보_2023.08.27.

◎ 건강

[스트레스가 살찌운다는데... 어떻게 막을까?](#)

헬스조선_2023.08.21.

[식사 시 소금 섭취 줄였더니...심장 질환 위험 18% 감소](#)

조선비즈_2023.08.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카~” 치맥에 빠진 한국…“깍~” 통풍 환자는 2배나 경증](#)

[동아일보_2023.08.26.](#)

◎ 기독교 / 종교

[“은퇴 이후 골치 선교지 재산… 선교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아이굿뉴스_2023.08.22.](#)

[장로 10명 중 8명 ‘임기제’ 찬성… 4명은 담임과 의견 충돌](#)

[기독일보_2023.08.23.](#)

[美 교회 내 ‘번영복음’ 만연… 교인 76% “물질적 부는 하나님 뜻”](#)

[크리스천투데이_2023.08.28.](#)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마성대

| 2023 하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 |

우리 연구소의 후원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2023 하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접수 QR

일 시 : 2023년 9월 9일(토) 오후 2:00 - 4:00

장 소 : 서현교회(마포구 서교동) 본당 및 유튜브 중계

문 의 : 070-7578-2957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